육·해·공 총동원 발포 명령 누구?…다시 全에 쏠린 눈

광주 진압하려 해병대까지 동원 '충격'

5·18기념재단·유족들 "군부 최고 실세 전두환 뿐"

'5공전사'서도 주도적 역할 드러나…이젠 입 열어야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전시 상황을 방불케하는 육·해·공 병력을 동원하고 발포를 명령한 군부의 핵심 인물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최근 공군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 증언에 이어 광주민주화운동 때 해병대까지 동원한 사실이 24일 새롭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증언과 사실은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전 대통령(당시 보안사령관)을 지목하고 있다.

24일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광주소요사태(21-57) 문건에 따르면 '광주 소요가 전남 전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산 주둔 해병 1사단 1개 대대 목포로 이동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이 문서의 생산부대는 505보안부대로, 작성일시는 80년 5월21일 새벽 0시20분이다. '5월21일 오후 1시'는 광주시민들에 대한 집단발포가 이뤄진 때다.

지금까지 20사단, 공수부대 3개 여단 등 육군 병력이 5·18 진압에 투입됐지만, 해병대까지 동원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5·18 기념재단, 광주항쟁 유족들은 육해공 전 군을 동원할 수 있는 인물은 당시 군부의 최고 실세였던 전두환 보안사령관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 씨가 주도하던 신군부는 5·18 발생 6개월 앞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불법 연행한 이른바 '12·12 사태'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상태였다. 보안사령관이던 전 씨는 12·12 이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5·18 전후로 중앙정보부장(서리) 등을 지냈다. 최규하 대통령은 허수아비였을 뿐이고, 계엄사령관 역시 모든 정보와 명령 계통을 틀어쥔 최고 권력자 전 씨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추적·연구하고 있는 팀 셔록(66)씨는 이와 관련, "전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5·18 당시 모든 군인들이 그의 통제 아래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5·18 기념재단 등은 육·해·공 병력을 동원했다는 것은 전두환 전대통령이 당시 전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했고, 발포 명령에도 관여한 방증이라고 해석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는 자신과는 무관하며 모르는 일이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979년~1981년 4월 5공화국 출범 전후 정치·사회 현안을 다룬 책자인 '제5공화국 전사'에서 이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이미 드러났다. 1982년 5월 신군부 실세인 당시 박준병 보안사령관이 펴낸 이 책자에는 중요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1980년 5월21일 국방부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게 광주에 출동한 군인들의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는 자리에 전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 책의 5·18 관련 내용을 보면, "(80년 5월) 21일 2군사(령부) 사령관 등이 육본으로 올라와 참모총장을 뵙고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였다"라고 돼 있다. 이어 "건의를 들은 참모총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자'고 하여 찾아간 장관실에는 장관과,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 수경사령관 노태우 장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술했다.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국방부 회의 2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1시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시작돼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최용주 5·18 기념재단 연구원은 "시위진압에 육해공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단발포에 관여했다는 또다른 사실 하나가 추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교도소 을지훈련 24일 오전 광주시 북구 광주교도소에서 열린 '2017 을지연습 실제훈련'에서 테러범이 탑승한 차량이 모의 바리케이트를 들이 받고 교도소로 돌진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광주교도소와 육군 제31사단, 광주·전남지방경찰청, 119특수구조단, 광주 북부소방서 등 9개 기관 150여명이 참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 숨은 영웅' 故 안병하 경무관 유족

5·18 보상금 반환 취소 소송 또 패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5·18 보상금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4일 안 경무관의 유족 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족들은 "보훈급여를 받고 있어 중복 지급이기 때문에 5·18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정부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안 경무관은 5·18 당시 경찰관의 무장을 금지하고 과잉진압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시위진압 실패를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연행돼 신문을 받고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생긴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8년 급성호흡마비로 숨졌다.

안 경무관의 유족은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억1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2006년 안 경무관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자 부인이 보훈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는 중복 지급이라며 안 경무관의 유족에게 지급한 5·18 보상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고 안병하 경무관의 셋째 아들인 안호재(58)씨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마저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택시운전사' 김사복씨 아들 주장 김승필씨

"아버지는 택시기사 아닌 호텔 소속 기사"

최근 SNS상에서 김사복씨의 큰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김승필씨가 아버지의 직업은 택시기사가 아니라 호텔소속의 운전기사였다고 주장했다.

24일 한 언론에 따르면 김승필씨는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김사복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개했다. 김씨가 공개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1959년생 김사복(金士福)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쓰여져 있었다.

김승필씨는 "아버지가 호텔 명의로 된 영업용 호텔택시를 운전했다"면서 "아버지는 호텔 택시 두 대와 자가용 한 대까지 석 대의 승용차가 있었으며 그중 한 대를 이용해 광주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아버지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셔서 많은 외신기자들이 단골로 삼았을 것"이라며 "광주의 참상을 직접 보고 온 이후 아버지께서 울분을 터뜨리고 술도 많이 드셨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씨는 "자식 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힌츠페터씨가 있는 망월동 구 묘역 옆에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는 바램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아이디 franio1013)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씨의 큰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영화를 감명 깊게 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택시운전사' 제작사는 "(김사복씨와)김승필씨의 관계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섬마을 70대 할머니 살해 용의자

"3년전에도 40대 여성 살해" 자백

같은 마을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남성이 3년 전에도 같은 마을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3년 전 이 마을에서 돌연사한 40대 여성의 몸에서 해당 남성의 DNA가 나오면서 제기된 살해 의혹<**광주일보 8월 24일자 6면**>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24일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경찰 등에 따르면 박모(30)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신안군 A(여·77)씨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는 A씨를 숨지게 했으며, 앞서 지난 2014년 6월에도 이 마을에 살던 B(여·49)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성행위 때 상대 여성의 목을 누르는 습관이 있는데, 당시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B씨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사건기록을 검토하던 중 박씨의 DNA가 2014년 6월 이 마을에서 병사한 B씨의 몸에서 나온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년 전 사건 등을 재수사하고 있다.

B씨는 당시 혼자 살던 자택 안방에서 숨진 지 3~4일 정도 지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에서 신원 미상 남성의 DNA가 검출되자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 마을 남자 중 4명의 DNA 샘플을 채취해 검사했으나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 병사로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간경화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추정되고, 외상이 없다는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B씨가 병사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박씨가 2건의 살인사건을 자백함에 따라 또 다른 추가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한살배기 아들 살해 시신 훼손 비정한 아버지 징역 20년 선고

한 살 난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4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와 함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B(21)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농장 지킬 개 필요해서…" 다른 농원서 키우던 진도개 훔쳐

쌍나팔

○…감나무 등을 키우는 60대 남성이 자신의 농장을 지키는 개가 필요하다면서 인근 다른 농원에서 키우던 진도개를 훔쳐 경찰서행.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68)씨는 지난 8일 새벽 4시 15분께 광주시 북구 망월동 다육식물 등을 판매하는 손모(61)씨의 농원에서 잠기지 않은 철제 우리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진도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2㎞ 떨어진 자신의 농장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농장을 오가면서 본 검은색 진도개가 늠름하고 용맹하게 보여 탐이 났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다른 진도개와 달리 손씨의 개는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는데도 가만히 있었다"고 설명.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경매물건 추천 !

■ 사건번호 – 2016 타경 14193
■ 임야 29831평, 주택 53평
■ 매각기일 – 2017년 9월7일(목)
■ 최저 입찰가 – 9억 60만원
■ 태양열, 펜션, 요양(병)원 등 모든 개발가능
■ 명도 간단 (이해관계인 없음)
■ 대출 80% 가능
■ 차후 15억이상 매매 가능

문의. 오천경매
H. 010-3605-5000